

3. 新年辭를 통해 본 北韓의 對內外 政策 展望

- (對內 政策) 體制 危機 意識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體制 維持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식량 위기와 같은 심각한 經濟難 속에서도 기존의 노선과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政治 思想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내부 통제와 결속의 강화 등 保守的 改革의 흐름일 것으로 전망됨
- (承繼 問題) 김정일을 黨의 '首班'으로 호칭함으로써, 외부의 평가와는 달리 김정일의 권력 장악 정도가 확고함을 보여주고 있음
- (對外·對南 政策) 對美 關係 개선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고, 南北 關係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더욱 否定的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한 轉機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올해도 당국간 대화나 남북 경험의 본격 추진 등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경제난 해소보다 체제 안정과 유지가 초미의 관심사

- (概要) 신년사(이하 공동사설)는 북한의 體制 危機 意識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경제난 해소 보다 體制 安定과 維持를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공동사설은 지난해와 달리, '가장 어려운 환경', '대단히 어려운 내외 환경' 등과 같은 표현을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체제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동사설은 守勢的인 입장에서, 정치사상·경제·군사 등 「사회주의 3대 障地 강화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체제수호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기존의 노선과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對內 政策) 공동사설은 食糧 危機와 같은 심각한 經濟難 속에서도, 기존의 노선과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내부 통제와 결속의 강화 등 保守的 改革의 흐름

### 름일 것으로 전망됨

- 우선 경제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革命的 經濟戰略'(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단순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 정책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軍事 重視 氣風, 전인민적 방위체계, 軍民 一致 運動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올해에도 軍部の 영향력과 군사 활동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3대 陣地 중에서 올해 북한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치사상 진지이며, 따라서 올해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사업을 그 어느 때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黨의 정치적 역할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경제 위기와 같은 총체적 難局을 內部 結束을 통해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됨
- 결국 黨과 軍을 중심으로 한 保守派의 입지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용주의적 개혁·개방파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김정일을 당의 수반으로 호칭하여, 김정일의 권력 장악에 이상이 없음을 시사

○ (承繼 問題) 공동사설은 김정일을 黨의 '首班'으로 呼稱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 장악 정도가 확고함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공동사설은 김정일을 '당과 인민의 公認된 領導者', '영원한 최고사령관' 등으로 호칭함으로써, 외부의 평가와는 달리 김정일의 권력 장악에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공동사설이 올해가 김일성 사망 3년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주창준 駐中 북한 대사의 기자회견(1월 3일) 내용을 근거로 하여, 김일성 사망 2주기 追悼式(7월 8일) 이후 김정일의 公式 承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

대남 비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轉機가 없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김정일의 공식 承繼 時點은 여전히 不透明한 것으로 평가됨

○ (對外·對南 政策) 북한은 대미 평화 보장 체계의 수립을 통한 對美 關係 개선을 最優先의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南北 關係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더욱 否定的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즉 공동사설은 對南 비방의 강도를 더욱 증대시키는 한편, 북한의 對南 威脅論을 '뒤집어 놓은 北侵論'이라 주장하며 남북 對決을 鼓吹하고 있음

· 이는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對決과 緊張을 통해 내부 結束을 다지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됨

- 특히 공동사설은 與野를 싸잡아 부정 부패 집단으로 비난하면서, '남한에서는 인민들이 기대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하여,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期待 心理를 排除하고자 하고 있음

-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볼 때, 특별한 轉機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올해에도 당국간 대화나 남북경협의 본격적 추진 등과 같은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공동사설은 경제공동위의 가동을 통한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추진(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북미관계 개선과 連繫시키고 있음

- 공동사설의 論調로 보아, 對北 쌀지원을 위한 우리의 전제 조건(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과 당국간 대화)을 북한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체제 안정을 위해 내부 '결속과 남북 대결'을 고취하면서, 식량 등 경제난 해소를 위해 對美·對日 接近 外交를 보다 加速化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이 태 섭)